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한-중 FTA는 기존 한-미, 한-EU 보다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한국의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약 25%, 17%(2014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한-중 FTA 체결로 향후 무역관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금번 한-중 FTA로 인해 한국은 11,272개(수입액 736.4억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5억달러)에 대해 20년내에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됨
-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 역시 한-미 FTA 의 9.3억달러, 한-EU의 13.8억달러를 크게 상회해 FTA 효과가 큰 편임
- 한-중 FTA로 국내 실질GDP는 발효 후 5년간 0.95%, 10년간 2.28%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된 바 있으며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로 인해 GDP가 2.72% 증가하고,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도 각각 4.28%, 4.93%로 기존 FTA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한-중간 분업구조 및 글로벌 경쟁관계 변화를 고려하면 금번 한-중 FTA가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 중국의 무역구조가 한국산 소재, 부품을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소재의 자급률 향상을 통한 자국내 소비 중심의 일반 무역으로 변화한 상태임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 및 자본집약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소재, 부품의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단순가공 무역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음
- 실제 중국은 2000년 50%에 육박하던 가공무역 비중이 현재 3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분업구조상 한국의 소재, 부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오히려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동남아, 중남미로 이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효과가 낮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과 경쟁 강도, 엔저·원고의 환율 효과 등이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한-미, 한-EU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방도가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5년내 관세 철폐 품목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양국의 주력 제품이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FTA 효과가 반감됨

-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실질 관세율(단순평균)로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 4.6%(전체 산업 기준), 중국은 8.6%로 관세 인하 효과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
 - 관세율만 보면 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의 상대적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0.2~0.4배 수준에 그쳐 대중국 수출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상호간 주력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15~20년간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고 즉시 철폐 품목의 영향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FTA 효과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 한국이 자동차를 양허 품목에서 제외하고, 중국이 PX, TPA, 굴삭기 등의 양허 품목 제외, 선박엔진, 축전지, 생활용품 등의 부분 감축을 결정한 것도 FTA 효과를 축소
- 특히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양 국가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이거나 이미 관세가 낮고 글로벌 경쟁 체제에 속해 있어 양 국가만의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

기계, 부품, 장비, 화장품, 음식료, 유통 업종은 긍정적인 반면 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예상

- 대부분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은 중립적이며, 일부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 및 부품, 장비업종과 화장품, 음식료, 유통 등 소비재 관련 업종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
- 반면 중국의 시장 지배력과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 업종은 국내 시장 잠식의 부정적 영향을 예상

전자상거래, 관광 및 운송서비스, 문화콘텐츠,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산업 부문도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중국 상업서비스교역이 연평균 19%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금번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서비스업종의 대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 및 운송서비스,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IT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음식숙박업 분야 등의 개방 수준이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음반제작/배급, 영화상영/배급 등 문화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놀이문화 확산이 두드러진 점을 고려하면 FTA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관광업에 대한 개방은 활발한 이동과 교류를 야기하여 여행업, 항공 등 운송업, 음식숙박업 등의 중국 진출은 물론이고 국내 연관 산업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
 - 한편 한국 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나 중국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아 오프라인 진출보다는 역해외직접구입 시장 활성화로 온라인 매출 증가를 기대
-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업종	주요 영향 및 내용	종합
전기기기	백색가전제품은 이미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수출입 효과가 미미	중립
반도체	78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해 이미 무관세임	중립
디스플레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하며 이미 중국에 생산 공장 운영 중	중립
휴대폰	이미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이고 해외 생산비중이 커 FTA의 실질적인 영향 미미	중립
자동차	양허대상 제외로 한-중FTA가 국내 완성차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중립
자동차부품	양허품목이 선택적이고, 현지 생산 비중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전망	긍정
일반기계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	긍정
의료기기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유리	긍정
조선	일반적으로 편의취적국(조세피난처)에서 선박 발주, 사실상 관세율 "0"	중립
정유	관세가 낮고 대중국 의존도 낮음, 관세 철폐가 대부분 5년 이후	중립
석유화학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나 중국 자급률 상승 및 원산지 규정 등으로 영향은 제한적	중립
의약	초기 마케팅 채널 확보까지는 시간이 필요,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증가	중립
타이어	저가 중국산 타이어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우려됨	부정
섬유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 예상	부정
철강	중국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고급 철강재의 양허 제외로 수출 효과는 미미	부정
비금속광물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부정
의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품질이 개선된 중국산 중저가 의류 수입 증가	부정
화장품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 효과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	긍정
음식료	관세 인하 시 기존 고급화 이미지에 가격경쟁력이 추가되면서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	긍정
건설	국내 건설사의 1급 중국건설면허 획득이 가능하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음	중립
소매유통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가능	긍정
해운	수출입 재화가 없으며 관세율 "0", 한-중 항로 중심의 일부 업체만 수혜	중립
항공	수출입 재화가 없으며 관세율 "0", 장기적, 간접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기대	중립

I.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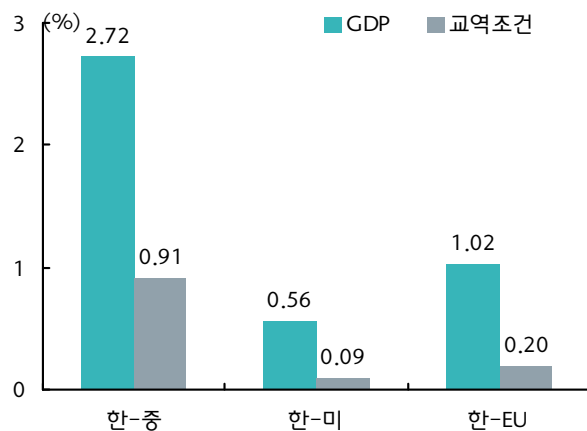
■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30개월만에 한-중 FTA 실질적으로 타결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북경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30개월 이상 끌어온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국 경제를 포괄하는 총 22개 항목의 FTA를 타결함에 따라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2%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
- 중국은 금융·통신·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킨 반면 자동차와 LCD를 양허 품목에서 제외(LCD산업은 10년 철폐 조건)했으며, 한국은 쌀을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610여 개 품목도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
- 양국 정부는 금년 중 세부사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관계 장관간 서명을 거쳐, 내년 중 FTA를 정식으로 발효할 예정
 -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연간 54.5억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FTA 체결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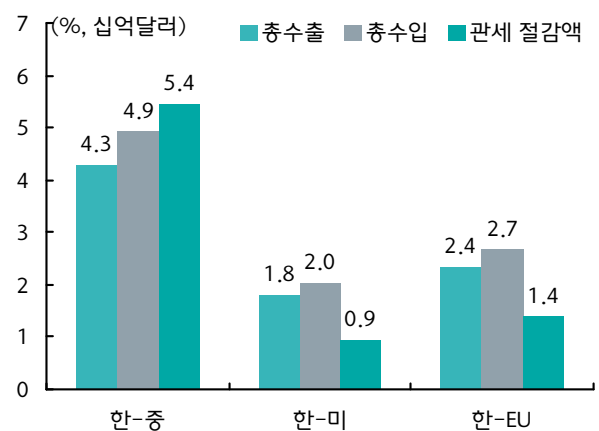
- 한-중 양국은 FTA 체결로 1) 상품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2) 투자 자유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부문 제1위 무역상대이며, 제2위의 투자대상국

그림1 | FTA 체결에 따른 GDP 및 교역조건 효과



주 : 농업 50%, 제조업 100% 과세 인자 가정, 자본축적모형 결과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그림2 |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변화와 관세 절감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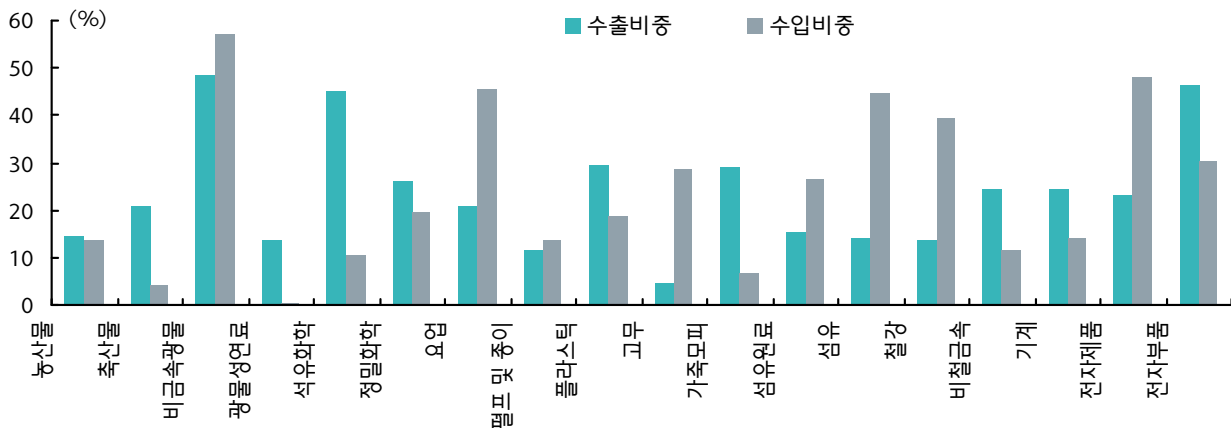
주 : 완전 자유화 최종 목표 달성시 가정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 특히 한국은 한-중 FTA 체결로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어 한-중 FTA를 활용하여 소비재 수출 및 의료,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선점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자동차·쌀 등 민감한 품목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세철폐 대상이 축소되고 관세철폐 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FTA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한-EU, 한-미 FTA는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 많고, 3~5년내 관세 철폐 비중도 90% 이상
-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자본재/중간재 제품이 부진한 추세를 감안하면 소비재 수출과 자본재/중간재 수출간 괴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FTA의 특성상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제품의 수출은 도태될 가능성

■ 한-중 FTA는 기존 한-미, 한-EU FTA 보다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의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약 25%, 17%(2014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한-중 FTA 체결로 향후 무역관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FTA 양허 품목들에 대한 정보 미공개로 현 시점에서는 제품별로 양허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언론이나 정부에서 공개한 제품을 중심으로 분석
- 금번 한-중 FTA로 인해 한국은 11,272개(수입액 736.4억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5억달러)에 대해 20년내에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됨
 - 즉시 관세 철폐 품목 수 비중은 한국 49.9%(금액 기준 51.8%), 중국 20.1%(금액 기준 44.0%)이며, 전체 품목 중에서 한국 92.2%, 중국 90.7%의 시장을 20년 내에 관세 철폐

그림3 | 산업별 전체 수출입액 중에서 대중국 의존도(2014.9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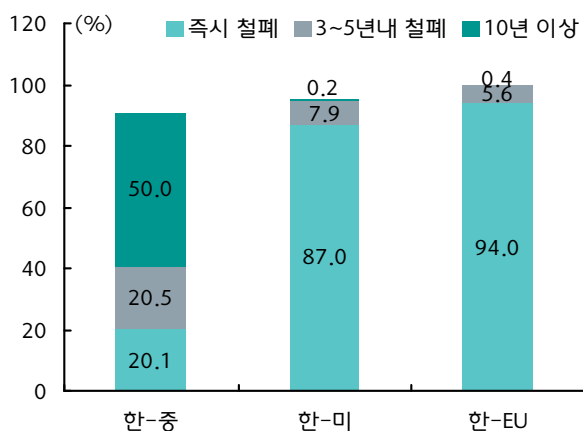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 역시 한-미 FTA의 9.3억달러, 한-EU의 13.8억달러를 크게 상회해 FTA 효과가 큼
 - 이들 제품은 국내 업체들의 상대적 기술경쟁력이 높은 편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만 확보되면 대중국 수출 비중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한편 한-중 FTA로 국내 실질GDP는 발효 후 5년간 0.95%, 10년간 2.28%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된 바 있으며 이는 한-미, 한-EU 효과보다 큼
 - FTA로 인한 GDP 증가율 추정(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한-중 2.72%, 한-미 0.56%, 한-EU 1.02%
- 또한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도 각각 4.28%, 4.93%로 기존 FTA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기대감이 존재

■ 그러나 한-중간 분업구조 및 경쟁관계 변화를 고려하면 금번 FTA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 중국의 무역구조가 한국산 소재, 부품을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소재의 자급률 향상을 통한 자국내 소비 중심의 일반 무역으로 변화한 상태임
 - 중국은 기존의 한국산 소재, 부품을 이용한 조립가공 무역에서 벗어나 자체 원부자재 조달 및 자국내 소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무역 의존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 및 자본집약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소재, 부품의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단순가공 무역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국산 부품소재 개발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자국산 소재를 20% 이상 사용한 제품의 경우 수출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저부가제품의 가공무역을 제한

그림3 | 한국의 주요 FTA별 양허 수준 비교(품목 수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언론 자료

표1 | 한-중 FTA의 관세 철폐 기간별 제품수 및 수입액

구분	관세 철폐	한국			중국		
		제품수	수입액	금액 비중	제품 수	수입액	금액 비중
일반 품목	즉시	61,08	418.5	51.8	1,649	733.7	44.0
	5년내	1,433	31.0	3.8	1,679	58.3	3.5
	10년내	2,149	173.3	21.4	2,518	312.5	18.7
민감 품목	15년내	1,106	79.5	9.8	1,108	219.2	13.1
	20년내	476	34.1	4.2	474	93.75	5.6
초민감 품목	부분 감축	87	23.0	2.8	129	100.1	6.0
	관세할당	21	6.0	0.7	0	0.0	0.0
	양허제외	852	43.0	5.3	637	149.9	9.0
총계		12,232	808.4	100	8,194	1,667.5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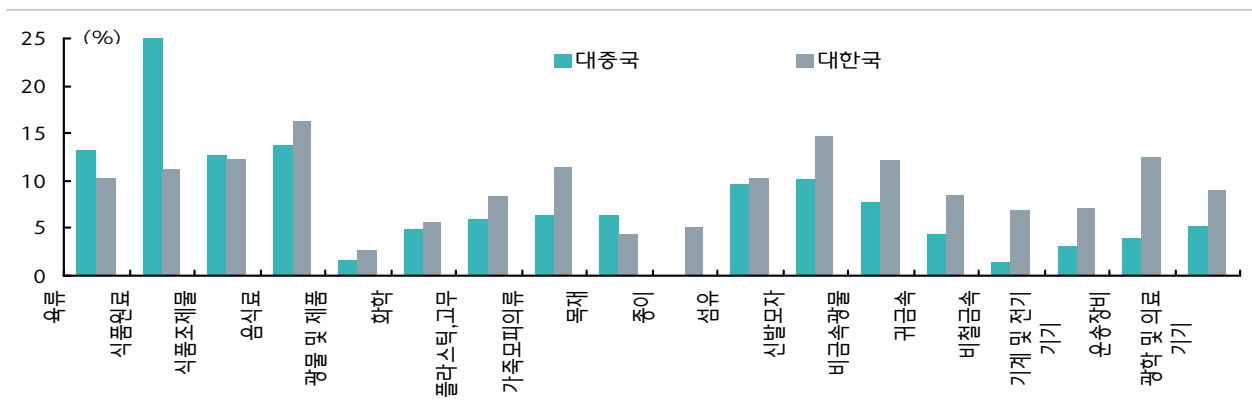
- 실제 중국은 2000년 50%에 육박하던 가공무역 비중이 현재 3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분업구조상 한국의 소재, 부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그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국과의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은 소재, 부품 중심의 국내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더 이상 과거 수준의 대중국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 게다가 글로벌 무역구조 상에서도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동남아, 중남미로 이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효과가 낮아지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
 - 철강, 조선, 통신단말기 등 일부 업종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며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하락하면서 한-중 무역이 FTA보다는 엔저, 원고 등 환율 변화에 더 민감해짐
- 특히 한-미, 한-EU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방도가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도 쿼터제, 양허품목 제외, 초민감 품목 적용을 통한 양허 수준의 부분 축소 등을 통해 FTA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방만 유지함

표2 |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철폐 기간별 주요 품목

관세 철폐 기간	한국	중국
즉시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제트유, L형강, 스테리스열연강판, 플라스틱금형, 플라스틱소재
5년내	플라스틱,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이온교환수지
10년내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 전자렌지, 밥솥, 고효수성수지
15년내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참치, 연육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부품, 금형, 안경렌즈
20년내	편직제의류, 축전기, 자동차부품, 화웨이, 맥주	ABS수지, 도료, 차량용축전지, 가정용정수기, 콘택트렌즈
부분 감축	조미료, 소스, 조제당콩, 냉동꽃게, 건조다시마, 면직물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엔진, 음향기기부품, 화장품, 샴푸, 린스
관세할당	대두, 참깨, 팥	-
양허제외	쌀, 고추, 마늘, 배추, 인삼, 사과, 배, 감귤, 냉동조기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굴삭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림5 | 주요 업종별 한국 및 중국의 실질관세율 비교(2012년 기준, 단순평균)



자료 : 관세청, 산업연구원

■ 관세 측면에서도 즉시 철폐품목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쳐 FTA 효과를 제한함

-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실질 관세율(단순평균)로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 4.6%(전체 산업 기준), 중국은 8.6%로 FTA 효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
 - 중국대비 한국 수입 관세율 : 농수산물, 목재는 1.3~2.2배, 제조업은 중국 대비 0.5배 수준
- 관세율만 보면 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의 상대적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0.2~0.4배 수준에 그쳐 대중국 수출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기술력이 높아 가격 경쟁력만 확보되면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됨
-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상호간 영향과 거래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15~20년의 기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FTA 수혜 업종은 소수에 그침
 - 중국은 즉시 관세 철폐 예정인 제트유, L형강, 열연강판, 금형과 5년내 관세 철폐 예정인 항공기부품, 통신기기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 이후 관세가 철폐
- 특히 한국은 자동차, 중국은 PX, TPA, 굴삭기 등을 양허 품목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은 선박엔진, 축전지, 생활용품 등을 부분 감축으로 제한한 것도 FTA 효과를 축소함

■ 서비스산업 부문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중 FTA 효과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영향도 중장기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FTA 효과가 단기적인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양 국가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이거나 이미 관세가 낮고 글로벌 경쟁 체제에 속해 있어 양 국가만의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
- 그러나 중국 상업서비스교역이 연평균 19%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금번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서비스업종의 대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
 - 중국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9.0%에서 2012년 43.6%로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 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실제 이번 FTA에서는 관광 및 운송서비스,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IT서비스, 건설 엔지니어링, 음식숙박업 분야 등의 개방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여행안내업은 중국이 양허를 제외하였으며 스포츠/레크레이션은 한국이 양허를 제외
- 특히 음반제작/배급, 영화상영/배급 등 문화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FTA 효과를 기대
 - 한-중 FTA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바람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

- 관광업에 대한 개방은 활발한 이동과 교류를 야기하여 여행업, 항공 등 운송업, 음식 숙박업 등의 중국 진출은 물론이고 국내 연관 산업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
 - 관광업 개방으로 중국 현지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까지 가능해졌으며 양국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상 및 항공, 철도 및 도로 등 육상 운송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이는 면세점과 카지노 등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인터넷 보급과 각종 육성 정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한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나 자국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아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듯
 - 다만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은 화장품, 악세서리 등 소비재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라는 간접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표3 | 서비스분야의 한-중 FTA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내국민 대우, 규제 금지, 관련 조치 공표 의무화 등
법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 합작
건축/엔지니어링	중국내 사업시 한국에서의 기존 실적 인정
건설	중국내 사업시 한국에서의 기존 실적 인정
유통	취급 금지 품목 완화
환경	하수처리서비스 시장 개방
엔터테인먼트	한국기업의 지분 참여 49%까지 허용,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은 부속서로 규정
통신	통신 규제와 관련한 무역 장벽 완화
저작권	보상청구권 규정, 기술보호조치, 배타적 권리 인정 등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 보호 등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뉴스 종합, 하이투자증권

II. 주요 산업별 영향

- 자동차부품, 기계,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료, 유통은 긍정적이나 타이어, 섬유, 철강, 비금속광물, 의류업종은 부정적 효과 예상
 - 대부분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은 중립적이며, 일부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 및 부품, 장비업종과 화장품, 음식료, 유통 등 소비재 관련 업종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 업종은 부정적 영향 예상

표4 |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업종	주요 영향 및 내용	종합
전기기기	백색가전제품은 이미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수출입 효과가 미미	중립
반도체	78개국에 참여한 다자간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해 이미 무관세임	중립
디스플레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하며 이미 중국에 생산 공장 운영 중	중립
휴대폰	이미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이며 대부분 해외 생산으로 한-중 FTA의 실질적 영향 미미	중립
자동차	양허대상 제외로 한-중FTA가 국내 완성차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중립
자동차부품	양허품목이 선택적이고, 현지 생산 비중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전망	긍정
일반기계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	긍정
의료기기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유리	긍정
조선	일반적으로 편취취적국(조세피난처)에서 선박 발주, 사실상 관세율 "0"	중립
정유	관세가 낮고 대중국 의존도 낮음, 관세 철폐가 대부분 5년 이후	중립
석유화학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나 중국 자급률 상승 및 원산지 규정 등으로 영향은 제한적	중립
의약	초기 마케팅 채널 확보까지는 시간이 필요,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증가	중립
타이어	저가 중국산 타이어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우려됨	부정
섬유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 예상	부정
철강	중국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고급 철강재의 양허 제외로 수출 효과는 미미	부정
비금속광물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 높으나 일반 소비재의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부정
의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품질이 개선된 중국산 중저가 의류 수입 증가	부정
화장품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 효과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	긍정
음식료	관세 부담 감소시 기존 고급화 이미지에 가격경쟁력이 추가되면서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	긍정
건설	국내 건설사의 1급 중국건설면허 획득 가능하나 가격경쟁력 및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음	중립
소매유통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가능	긍정
해운	운송산업으로 수출입 재화가 없으며 관세율 "0", 한-중항로 일부 업체만 수혜	중립
항공	운송산업으로 수출입 재화가 없으며 관세율 "0",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중립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전기기기(HS 8415, 8418, 8450, 8532 등) : 백색가전제품은 대부분 해외 생산이거나 관세가 낮고 10~20년내에 인하될 예정이어서 단기적인 FTA 영향은 매우 미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은 대부분 해외 생산이어서 FTA 영향이 미미

- 한국은 10년내 냉장고, 세탁기의 관세를 철폐, 중국은 냉장고, 에어컨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년내에 축전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FTA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
- 게다가 백색가전 관세율이 한국이 8%, 중국이 90~130%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미 중국에서 생산하여 역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중의 수출입 효과는 미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의 한국 관세는 8% 수준, 중국은 90~130% 수준으로 중국 관세가 매우 높지만 대부분 중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자동차용 축전기를 20년내에 관세 철폐하고 리튬이온축전지와 음향기기 부품을 초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관세의 부분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FTA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
 - 축전기(리튬이온축전지 포함) 등의 한국 관세가 8% 수준, 중국은 40~90%로 대중국 수출시 가격 인하 효과가 매우 크지만 중장기 관세 철폐로 FTA의 단기적 효과는 미미

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한국의 시장지배력, 기술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무관세 또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FTA 영향은 매우 미미

■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이미 높은 시장지배력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해 FTA 효과는 크지 않음

- 반도체(집적회로, HS 8542), 디스플레이(HS 7005, 7006)는 국내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아 국내 수입 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이며 자체 생산을 위한 수입이 대부분
 - 집적회로 일부 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한국 관세가 8% 이내 수준이고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 거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에 의한 수입 효과는 크지 않음
- 특히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미 한국 제품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높아 FTA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 집적회로 일부 제품의 한국 관세가 8% 수준이나 비중이 매우 작고 국내 경쟁력이 매우 높아 거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도 수입 효과는 크지 않음
- 반도체 제조장비(HS 8541, 9030 등)를 중국이 5년내 관세 철폐할 예정인데 중국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중국 수출시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반도체 제조장비의 관세율은 한국이 무관세 또는 8% 수준, 중국은 17~20%

3. 휴대폰(HS 8517) :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 다만 장기적으로 저가 제품 중심의 수입 증가 예상

- 이동통신단말기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14년 9월 누적 기준 21.7%로 단일 국가로는 높은 편
 - 이동통신단말기(HS8517)품목의 '13년 수출액은 256억달러로 전년대비 22.1% 증가했으며 '14년 9월까지 누적규모도 전년동기간비 12.1% 증가한 203억달러에 달함
 - 이중 대중국 수출액 규모는 '13년 45억달러로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4년 9월까지 누적수출액은 44억달러로 21.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비중이 상승

- 다만 기 발효된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과 높은 해외 생산비중으로 FTA 효과 미미
 - 이동통신단말기는 이미 WTO가입 국가 간 ITA협정 체결로 인해 FTA에 따른 실질적 관세철폐 효과가 거의 없음
 - 또한 삼성전자의 중국 생산비중은 40%에 이르며 전체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은 90%로 대부분 해외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
 - 삼성전자 휴대폰 국내 및 해외 생산 비중 : 50%(베트남), 40%(중국), 10%(국내)

- FTA에 따른 관세 효과 없으나 교역량 증대에 따른 TV를 포함한 가전기기 브랜드 노출 확대와 단통법 도입에 따른 저가폰 수요 증가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입 규모는 확대될 전망
 - 휴대폰, 노트북PC 등 중국산 국내 수입품 또한 관세없이 10% 부가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교역량 증대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변화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비중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4. 자동차(HS 8703) : 양국의 양허 대상 제외로 영향이 없으며 향후 현지화가 가속화될 전망

- 자동차 양허대상 제외가 현대/기아차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
 - 현재 중국은 완성차 22.5%, 자동차부품 6~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의 중국 현지 생산과 판매 비중이 높아 관세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음
 - 현대/기아차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 한-중 FTA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
 -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에서 각각 3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105만 대, 74만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

- 게다가 현대차는 추가로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며, 향후 중국 현지 생산능력을 20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2013년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 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 8,000여 대로 미미한 수준
- 사실, 현대/기아차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차량은 에쿠스, 제네시스, 그랜저, K9, K7 등 준대형차와 대형차 중심으로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 중국 고급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이런 배경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한-중 FTA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글로벌 자동차가 국내에 저렴하게 유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았음
 - BMW,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중국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
- 실제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글로벌 완성차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도 국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데 수입차 공세가 거세지면서 내수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관세 유지가 오히려 유리

■ 반면, 국내 외국계 완성차업체는 FTA 협상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

- 국내 완성차기업 5곳 가운데 현대/기아차만이 중국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한국 GM은 중국에 반조립 제품을 수출 중
-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2013년 각각 3만 5천여 대, 1만 5천여 대를 수출했음
 -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이번 한-중 FTA 협상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
- 르노삼성차의 모기업 르노자동차가 중국에서 연간 8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르노삼성차는 국내 생산 차량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동차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르노삼성차의 중국 수출 가능성이 다소 희박해짐

표5 | 한-중 FTA가 국내 자동차, 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부 업종	단기(1년 이내)	중기(3~5년)	장기(5~20년)
자동차	중립	중립	중립
자동차부품	중립	긍정	긍정
타이어	중립	부정	부정
일반기계	긍정	긍정	긍정

주 : 영향도는 부정, 중립, 긍정 등 3단계로 구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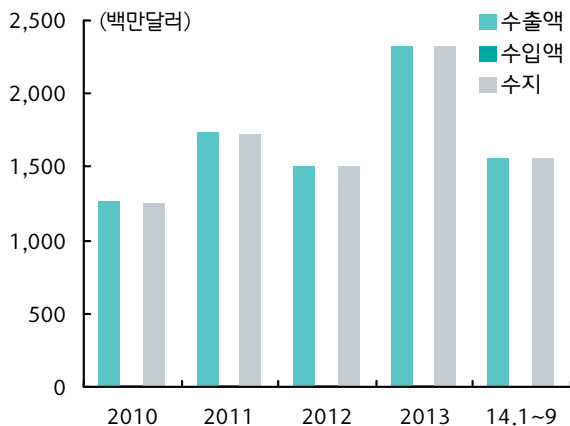
- 쌍용차는 2011년부터 중국시장 공략을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중국 수출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4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었음
 - 내년 출시되는 소형 SUV(X100) 가솔린 모델을 중국에 수출하는 계획을 세웠고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가 낮아진 상황
- 한-중 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국내 완성차기업들은 지금처럼 현지화 전략 위주로 중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나갈 전망

5. 자동차부품(HS 8708) : 양허 대상이 제한되어 단기적 효과는 미미하나 중장기로는 긍정적

■ 양허 대상이 제한적이고,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당분간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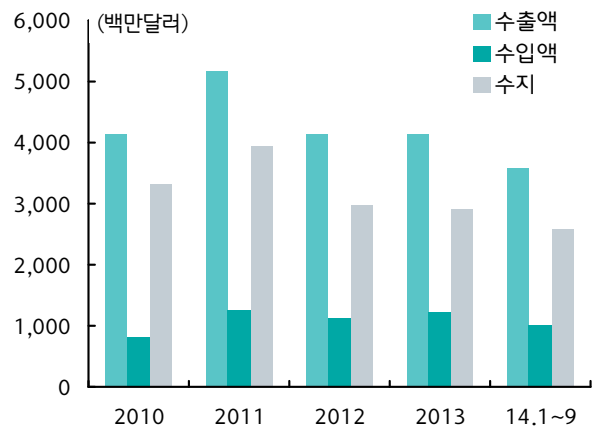
- 한-중 FTA에서 자동차부품의 경우 1차 축전지와 브레이크 등의 부품은 관세가 철폐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의 제약이 걸려 있음
- 또한 양허제외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으로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이 있고 자동기어 변속장치나 차체부분품도 부분 감축 항목에 포함되어 사실상 FTA 영향은 크지 않음
- 특히 주요 자동차부품회사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10%에 달하는 관세 철폐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최소 10년 동안은 이번 한-중 FTA 결과가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산 대비 국내 자동차부품의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고 주요 메이저들의 글로벌 조달 능력도 양호해 중장기적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까지 확보될 경우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6 | 대중국 자동차 수출입액 동향



자료 : 무역협회

그림7 |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입액 동향



자료 : 무역협회

6. 기계(HS 84) : 기술력 우위로 FTA의 긍정적 영향 기대

■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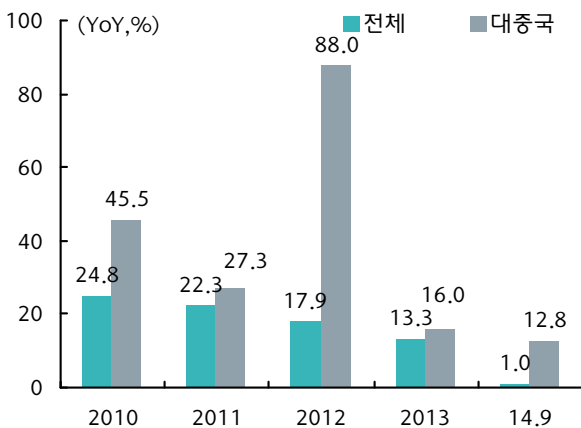
- 한-중 FTA 타결로 기계산업에서 고품질 기계의 중국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며, 반면 가격이 낮고 사양이 떨어지는 중국산 기계요소, 공구, 부품 등의 수입은 늘어날 듯
 -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8.1%로 한국의 평균 관세율 6.6%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세율이 10%가 넘는 품목 수의 경우 중국은 전체 수입 품목 중 19.2%인 229개인 반면, 한국은 0.2%인 2개에 불과하여 한국이 관세율 측면에서 유리
- 또한 2013년 일반기계의 중국 수출은 전년비 11.2% 늘어난 143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0.4% 증가한 95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무역수지도 48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
- 건설기계 완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나,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 기대

7. 의료기기(HS 901) : 품질, 기술력이 높은 편이어서 수출 효과가 기대되어 영향은 긍정적

■ 고성장 중인 중국 시장에서 F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 점유율의 상승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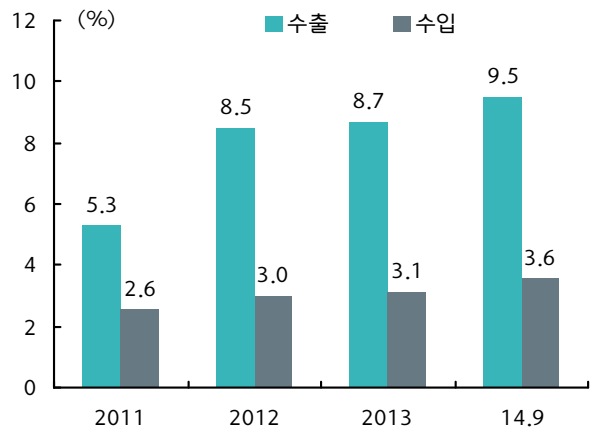
- 의료기기는 5년내 관세 철폐 대상이며 국내 수입 관세가 8%로 중국의 11~17%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더 유리

그림8 | 한국 의료기기의 전체 및 대중국 수출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그림9 | 한국의 대중국 의료기기 수출입 비중



자료 : 무역협회

- 실제 의료기기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9.5%이 반면 수입 비중은 3.6%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기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대중국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 중
- 특히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중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어 수출이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한-중 FTA는 의료기기 업종에게 긍정적
 - 전체 생산액 대비 5.8% 정도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며 관세 철폐시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음

■ 기술력 향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와의 경쟁도 가능해 수출 성장 여력이 큰 편

- 의료기기의 내수가 3~5%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경쟁 심화로 수출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술력이 선진국의 85~90% 수준에 도달해 수출 성장 여력이 높은 편
 -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25%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 중이나 GE 등 글로벌 메이저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3.3%에 불과한 한국의 점유율 상승을 기대
- 의료기기는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이며 품질, 브랜드력, A/S 등이 매우 중요해 기술력이 실적을 좌우하는 제품이어서 중국산 수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보다는 품질이 중요하고 갈수록 첨단화, 정밀화,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이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8. 조선 : 관세 영향은 전무하나 중국 조선사의 국내산 후판 가격 인하로 원가경쟁력 상승

■ 선박은 편의취적국¹⁾을 통해 선박을 발주함에 따라 사실상 관세가 0%로 FTA 영향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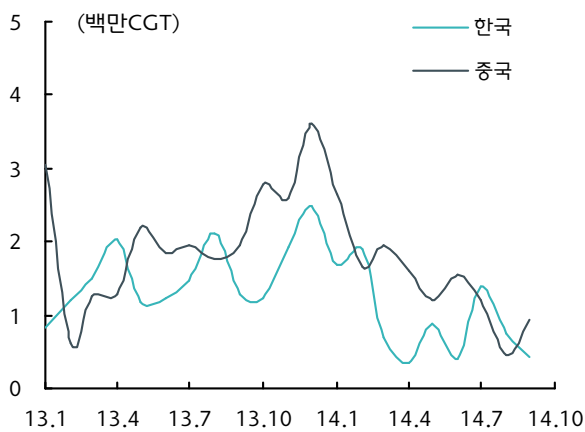
- 선박 시장의 경우 사실상 완전경쟁 시장으로 관세를 면하기 위해 SPC를 편의취적국에 설립하여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중 FTA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선박 1척당 1개의 SPC를 조세피난처(편의취적국)에 설립하는 게 보편적
- 또한 중국의 경우 국수국조주의로 인하여 자국 선박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조하고 있고 선박금융 지원 등의 특혜가 존재해 한국에 발주를 할 만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선박금융 지원이 중국에 비해 양적·질적인 면 모두 못미침

1) 편의취적국(便宜取籍國·Flags of Convenience)제도 : 전 세계 선박·해운·조선업계에 통용되는 제도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선주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 예컨대 파나마나·라이베리아 같은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발주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선박이 외항선으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임

■ 오히려 중국 조선업체가 질 좋은 한국산 후판을 저렴하게 사용 가능해 국내 조선사 위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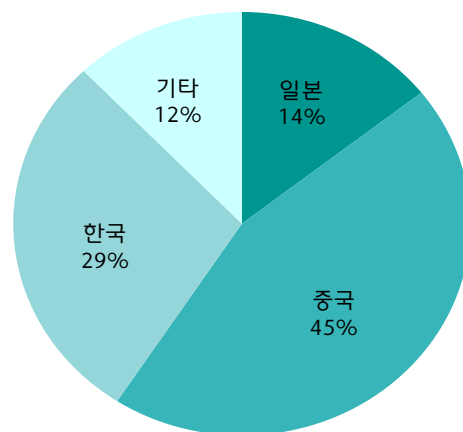
- 중국은 이미 세계 오더북 기준 한국 조선사를 앞지르며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건조 선박들과의 품질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가고 있음
 - 선박 글로벌 오더북 중 중국 조선사의 비중은 45%, 한국 조선사는 29%로 그 뒤를 따름
- 이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해 한국산 고품질 강판에 관세철폐가 이뤄질 경우 이를 사용한 중국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 조선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중국 조선업은 한국 강판을 이용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림10 | 한중 선박 수주 변동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11 | 글로벌 오더북 국가별 현황



자료 : 업계 자료

9. 석유정제(HS 27) : 제트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품의 양허 기간이 길어 영향은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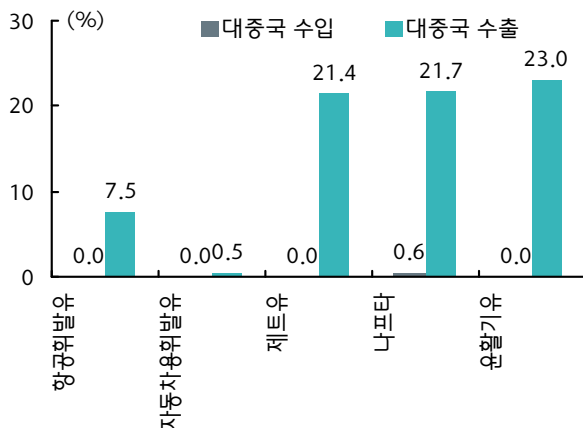
■ 양국간의 원유 무역 규모가 미미해 큰 의미는 없고 나프타도 단기 효과는 미미

- 한-중 FTA에서 한국은 원유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3년간 중국산 원유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FTA 영향이 없음
- 국내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는 중국산 비중이 1% 내외이고 이미 무관세여서 효과가 미미하며 중국의 관세도 15년간에 걸쳐 철폐되어 단기 효과는 미미
 - 나프타의 경우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30%로 높은 편이고 중국의 수입 관세도 20%에 달해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 민감품목 지정으로 관세 인하는 장기에 걸쳐 진행됨

■ 석유제품 중 제트유만 FTA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기대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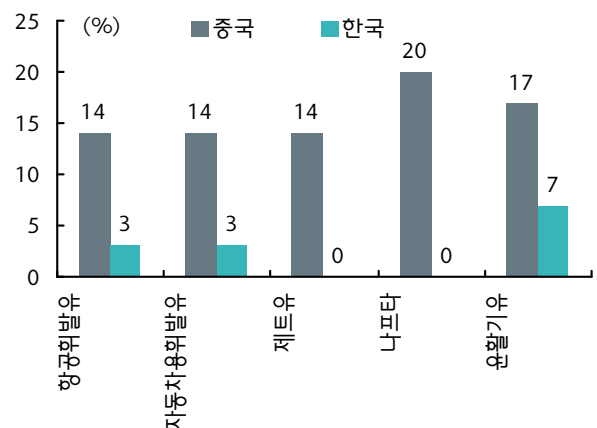
- 중국은 제트유 관세(14%)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한국은 5년내 철폐(관세율 3~5%)할 예정이이고 대중국 수출비중도 높아 FTA 체결시 제트유의 수출 증가를 기대
 - 석유제품 중 제트유 생산 비중이 13%로 높은 편이며 대중국 수출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출비중이 29%에 달하고 중국의 관세율도 높아 FTA 효과가 매우 큰 품목
- 반면 한국은 휘발유를 15년내 철폐, 중국은 아스팔트를 15년내에 철폐할 예정으로 있는 등 다른 석유제품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면서 FTA 효과는 크지 않을 듯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3%에 달하는 윤활기유 민감품목 지정으로 15년내에 관세를 철폐

그림12 | 주요 석유제품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



자료 : 무역협회

그림13 | 주요 석유제품별 한국 및 중국의 수입 관세율



자료 : 관세청(기준 관세율 기준)

10. 유기화학품(HS 29) :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실질적 혜택은 미미해 영향은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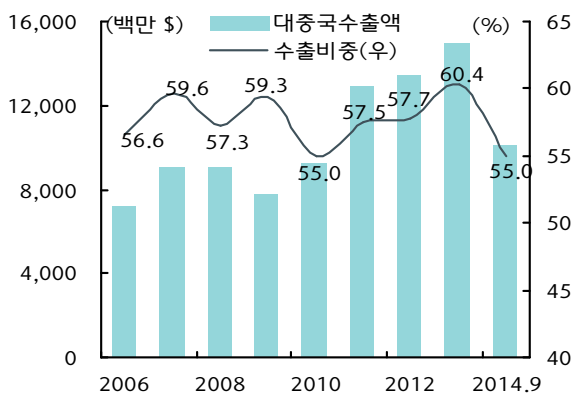
■ 2~6%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장기적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경쟁력 향상 기대

- 국내 석유화학(유기화학품 기준)은 생산량의 50%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 중 약 5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 2014년 1~9월 대중국 무역에서 한국은 유기화학품(HS 29)기준 101.4억 달러(9.6%)의 수출을 기록
-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은 2~6%에 이르나 한-중 FTA타결로 일부 제품의 관세가 10~20년에 걸쳐 철폐되므로 중장기적인 수혜 예상
 - 관세 철폐시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가 15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특히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던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는 대만 등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구도를 이루게 될 전망
 -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PE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 상승 기대

■ 다만 주력상품의 양허 제외,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원산지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은 제한적

- 다만 석유화학 주력 수출 상품인 PX, PTA 등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수혜는 축소될 전망
- 또한 중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제안하고 있어 원가의 50% 내외를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국내 석유화학 제품 중 일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
 -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할 경우 국내 생산 부가가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
- 한편 범용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는 중국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우려도 존재하여 실익은 제한적일 전망

그림14 | 유기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6 | 석유화학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영향

주요 제품	현행 관세율	양허내용	영향
나프타	6%	15년 내 철폐	원산지 규정 강화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
에틸렌 등 기초유분	2%	10년 내 철폐	기존 관세 낮아 관세 인하 효과는 적음
PE, ABS 등 합성수지	5.5~6.5%	20년 내 철폐	관세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
파라자일렌(P-X), 테레프탈산(PTA), 에틸렌글라이콜(EC)	2%	양허 제외	영향 無

자료 : 언론자료 정리

11. 의약품(HS 30): 가격보다 브랜드력과 품질이 중요해 영향은 중립적이며 효과도 장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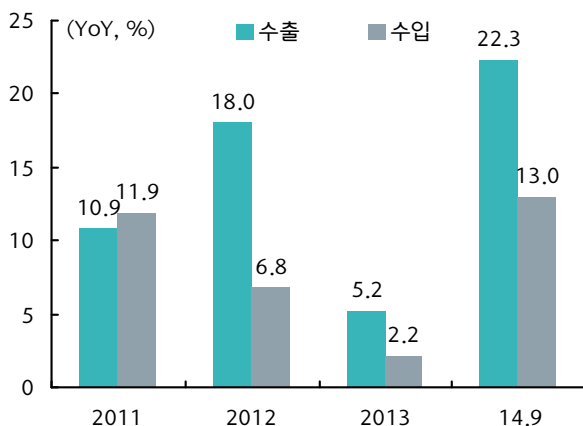
■ 대중국 수출은 전체 의약품 생산의 0.7%에 불과해 단기적인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한국이 의약품을 즉시 관세(현재 8%) 철폐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산 의약품(수입 비중 2.5%)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주로 원료 의약품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
 - 의약품은 각국의 시판 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하며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가 오리지널의약품은 외국계 제약사의 브랜드력이 훨씬 높아 중국 의약품의 수입 확대 폭은 제한적
- 2014년 국내 의약품 수출액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생산액 대비 1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수출 의약품 중 대중국 비중은 7%에 불과
 - 대중국 수출은 전체 의약품 생산액의 0.7%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의약품 관세가 30%에 달하고 있어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은 편

■ 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약품의 수입 증가, 완제 의약품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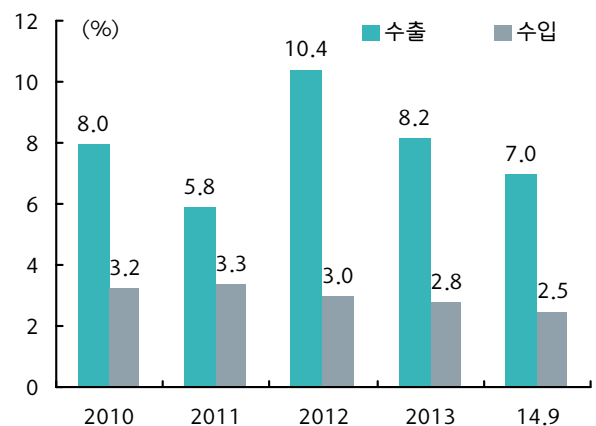
- 약가 인하 압력, 리베이트 제재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큰 제약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 둔화를 수출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
 - 2013년 잠시 주춤했던 의약품 수출이 중국 및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마케팅과 임상실험 등으로 2014년 22% 이상 증가하여 수출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상황
- 완제 의약품의 특성상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국 역시 다양한 원료 및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원료 의약품 중심의 수출에 집중할 듯
 - 국내 원료 의약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인종,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아 대중국 의약품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입 비중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판단

그림15 | 한국의 의약품 수출입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그림16 | 한국의 대중국 의약품 수출입 비중



자료 : 무역협회

12. 타이어(HS 4011: 신차용) :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영향은 부정적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타이어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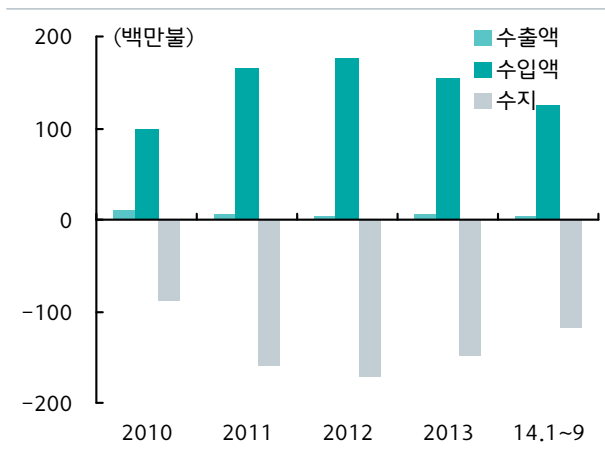
-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타이어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년 내 철폐되는데 국내 타이어 회사는 이미 중국에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한 상태여서 큰 수혜는 없을 듯
 - 중국의 타이어 수입 관세가 50%에 달하나 15년간의 관세 인하로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고 이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각각 3개, 4개, 1개의 중국 공장을 가동 중
- 오히려 국내 타이어회사들은 관세 철폐(현재 5%)로 중국산 저가 타이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일반적으로 타이어제품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품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반면 가격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따라서 현재 국내 타이어 3사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만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재편 가능성도 존재
 - 다만 중국산 타이어의 한국 내 유통망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저품질에 대한 인식 해소가 필요해 단기간내 급격한 시장 잠식 가능성은 낮지만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 없음

13. 섬유(HS 54, HS 55) : 대중국 수입의존도 심화가 우려되어 영향은 부정적

■ 섬유 부문은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FTA 체결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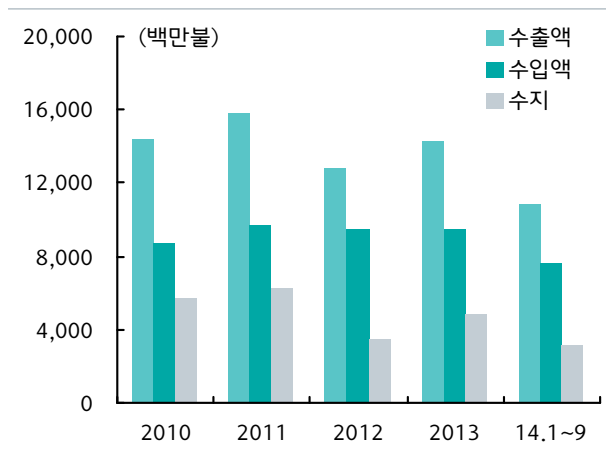
- 중국은 국내 섬유 산업 내 최대 교역국이며 2014년 1~9월 대중국 무역에서 섬유제품 (HS54, HS55) 수출은 6.7억 달러, 수입은 7.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

그림17 | 대중국 타이어 수출입액 동향



자료 : 무역협회

그림18 | 대중국 일반기계 수출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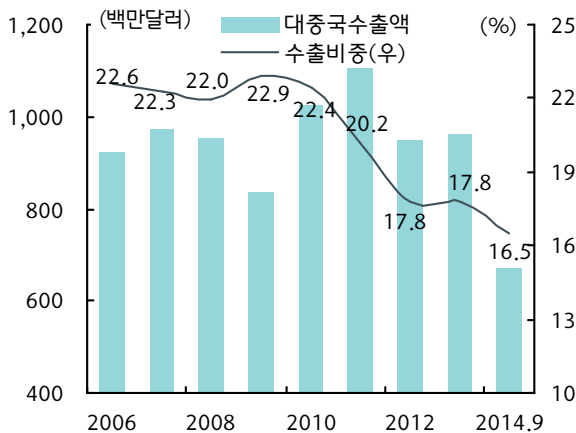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이는 중국의 섬유 제품 자급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국 내 섬유류 수입 수요가 감소하였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범용섬유 제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
 - 폴리에스터 원사의 경우 현재 관세 8%에 반덤핑관세 3~5%를 부과해도 중국산 가격이 더 낮음
- 한-중 FTA 체결로 8~10% 내외에 이르는 섬유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저가 범용 섬유제품의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
 -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은 면직물 및 폴리혼방 직물, ITY니트직물 등의 품목
- 최근 정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로 섬유산업의 전면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섬유부문의 대중 무역적자폭은 4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가 예상되어 타격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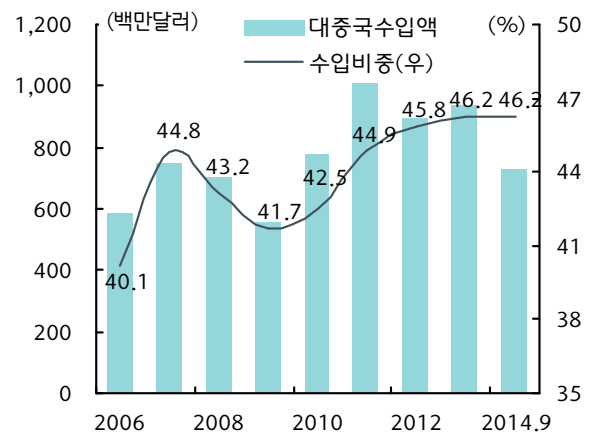
- 한편 산업용 섬유 및 고부가가치 특수 섬유 부문 등에서는 아직 국내 제품이 중국 대비 기술력 우위에 있어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 고부가가치 섬유의 단가는 범용 섬유 대비 5~20배 까지 높고 최근 경기 회복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양적으로 줄어드는 수출을 금액으로 보완할 수 있을 전망
 -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용 및 특수 섬유 수요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기록 중

그림19 | 섬유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0 | 섬유 제품의 대중국 수입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4. 철강(HS 72, 73) :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수출 효과 미미, 오히려 국내 시장 잠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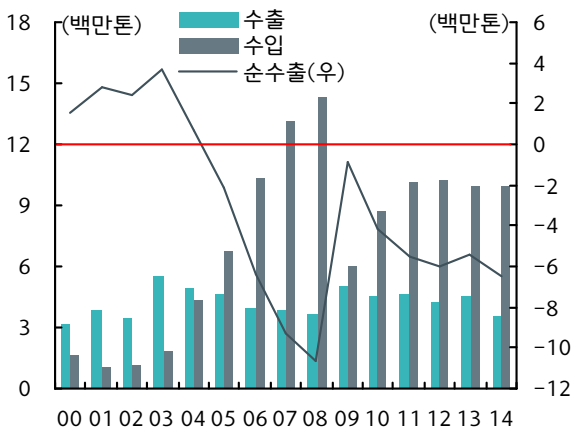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시장 잠식

- 한국의 대중국 철강 교역은 순수입 구조로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연간 기준 순수입량 500만톤을 상회하며 이는 연간 조강생산량의 8%
 -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철강재 무역 : 수출(456만톤)-수입(993만톤) = 순수입(537만톤)
- 국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1/2 정도를 중국제품이 차지하며 주요 철강제품별로 살펴보면 냉연을 제외한 열연/후판/붕강/형강/강관/철근 등 대부분의 제품이 순수입 상황
 - 철강 품목별 무역 수지 현황(순수입, 2013년 기준) : 중후판(108만톤), 열연(189만톤), 형강(103만톤), 붕강(82만톤), 강관(33만톤), 철근(31만톤), 냉연(-90만톤)

■ 중국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고급 철강재 양허 제외 등을 감안할 때 수출 효과는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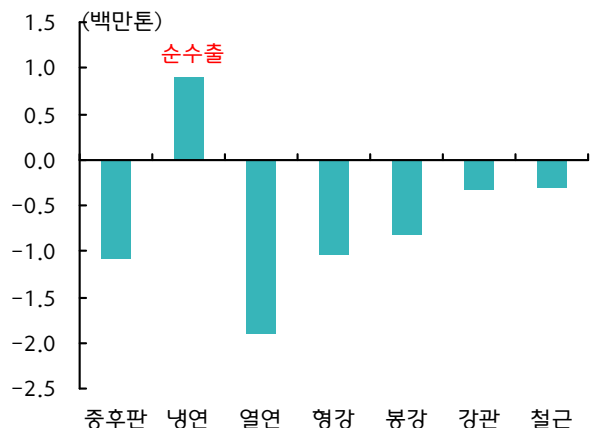
- 양국간 FTA 발효시 중국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되던 3~20%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등 한국 기업들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 품목별 중국 수입관세 : 선철 8%, 합금철 11%, 잉곳 및 강반제품 11%, 열연/산세/무늬강관 14%, 중후판 17%, 냉연 17%, 도금 20%, 선재/붕강 20%, H형강/I형강 14%, 앵글 17%, 도금강선 40%
- 그러나 중국이 세계 최고의 철강 과잉공급 국가이며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냉연 등 일부 고급제품이 양허관세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효과는 미미할 전망
- 또한 조선, 건설, 자동차(양허대상 제외), 가전(현지생산 비중 높은 편)과 같은 주수요산업 영향에 따른 간접적인 철강 수요 증가의 기대치도 높지 않은 상황

그림21 | 철강재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액 추이



자료 : 한국철강협회

그림22 | 철강 제품별 대중국 무역수지 현황



주 : 2013년 기준
자료 : 한국철강협회

15. 비금속광물(HS 68~70) :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의 내수 시장 잠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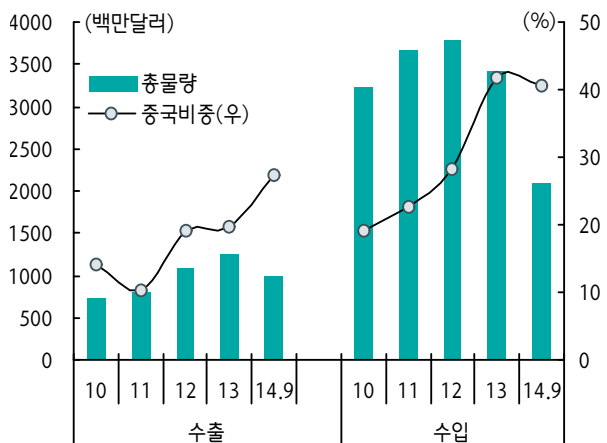
■ 최근 저가 중국제품의 수입 비중 크게 확대

- 대부분의 국내 비금속광물제품은 중국 등 신흥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열위하여 중국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시멘트의 경우 고중량에 따른 운송비 부담으로 국내업체 출하량 중 수출 비중이 약 7%에 불과하며 수입물량은 수출량의 20% 이하로 극히 미미한 수준
- 유리제품, 타일/도자기 등 일반 소비재 비금속 광물 제품의 경우 국내 제품의 열위한 가격경쟁력으로 수출 비중은 낮으나 저가제품의 수입 비중은 확대
 - 수입물량 중 중국제품 비중(2013년)은 유리제품이 41.7%, 타일/도자기는 53.0%에 달함

■ 기술력이 낮은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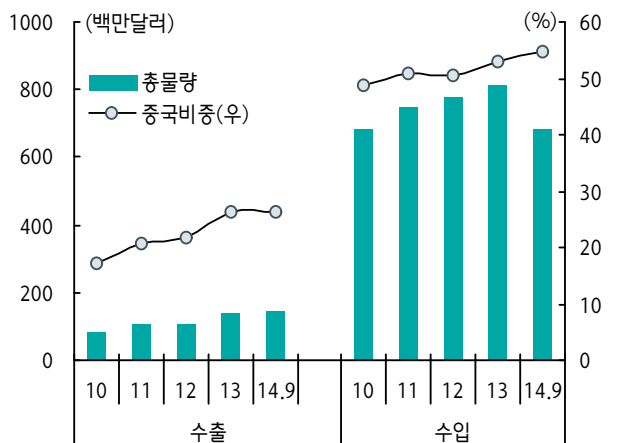
-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 제품의 경우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데다 유연탄, 석회석 등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도 낮기 때문에 한-중 FTA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듯
- 일반 소비재의 경우 한-중 FTA로 인해 저가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기술력이 낮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최근 중국 진출을 본격화한 밀폐형 유리용기 등 일부 특화 상품의 수출은 확대될 전망
- 그리고 판유리, 내화요업제품 등 대형·고중량의 건자재의 경우 국내 제품의 내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단기적인 실적 악화 가능성은 낮음

그림23 | 유리제품의 무역량 및 대 중국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4 | 타일/도자기 제품의 무역량 및 대 중국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6. 의류(HS 62) :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확대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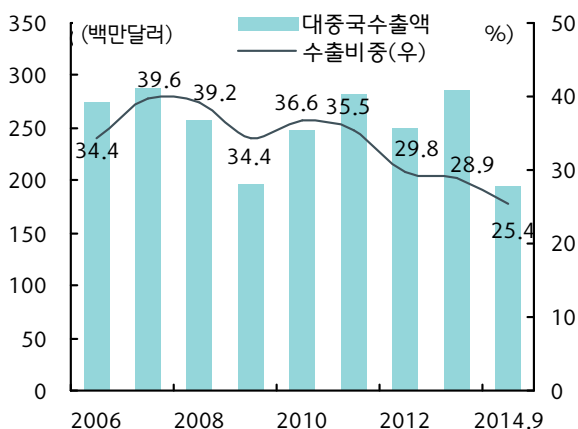
■ 품질이 개선된 중국산 중저가 의류의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중국은 국내 의류 산업 내 최대 수입국으로 2014년 1~9월 대중국 무역에서 의류 제품(HS 62) 수출은 1.9억 달러, 수입은 17억 달러로 15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
- 한-중 FTA 체결로 15~20% 내외에 달하는 의류 제품의 관세가 0~1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저가 중국산 의류의 국내 유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
 -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고가 의류제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중저가제품의 경우 경쟁력이 향상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결국 한-중 FTA 체결로 의류산업의 전면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산 의류 수입은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중 무역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반면 국내 제품의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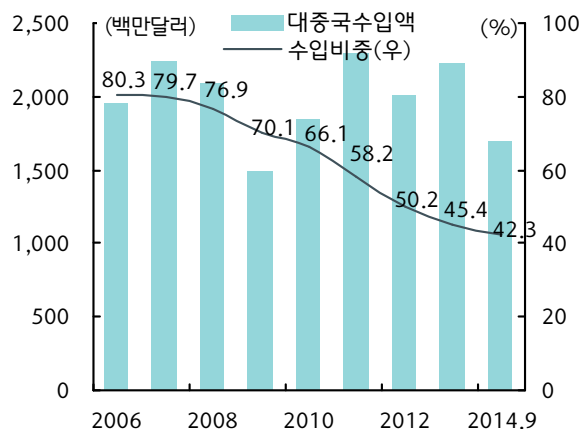
- 국내 수출의 경우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고, 국내에서 만든 의류를 수출할 때 관세도 축소되지만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미미하여 실제 영향은 제한적
- 또한 국내 메이저 패션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한국’ 로열티를 기반으로 고급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랜드와 더베이직하우스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는 FTA 체결로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데 따른 수혜를 기대
- 한편 최근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SPA업체들 중 중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로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25 | 의류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6 | 의류 제품의 대중국 수입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7. 화장품 (HS 3303) : 가격 효과보다는 관광객 유입과 직구 확대에 따른 영향이 더 클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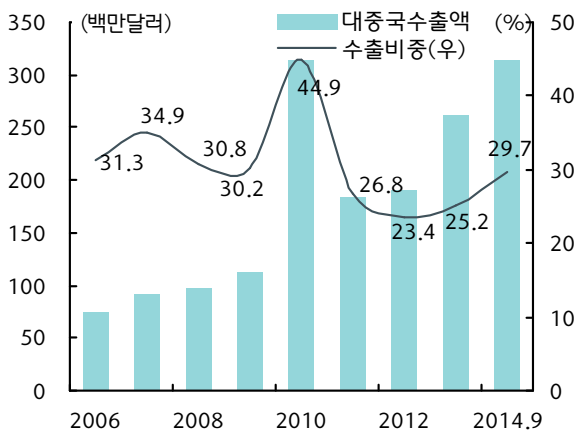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을 제고 효과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

- 중국은 국내 의류 산업 내 최대 수입국으로 2014년 1~9월 대중국 무역에서 의류 제품 (HS 3304) 수출은 3.1억 달러, 수입은 990만 달러로 3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
- 화장품은 중국에서 6.6~10%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므로 관세 철폐 시 내 제2의 내수시장인 중국시장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전망
- 다만 중국에서 국내 업체들은 가격을 무기로 경쟁하는 포지션이 아니므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당장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전망
- 그러나 관세철폐로 업체들의 마진을 개선이 기대되며, 마진이 높아지면 그만큼 중국 내 재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중국내 화장품 사업은 확대될 수 있을 전망
 - 전반적인 마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중국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이익규모도 확대될 전망

■ 관광객 유입 확대, 직구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도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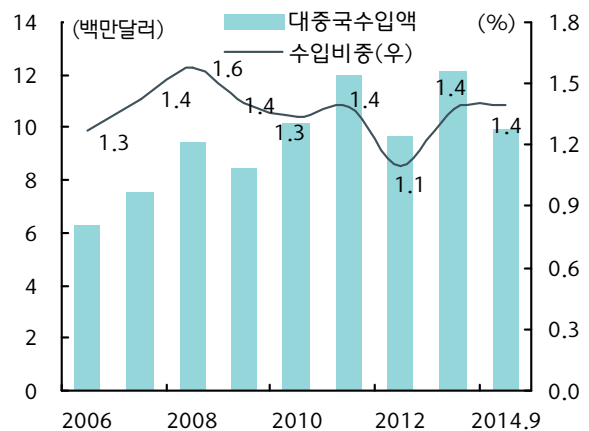
- 한편 FTA체결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류 붐으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들이 값비싼 일본, 유럽 화장품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국내 화장품을 선호
- 또한 관세철폐로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화장품 부문의 판매 확대가 기대됨
 - 중국 구매대행 시장에서 한국제품 구성비 : 화장품 22%, 분유 15%, 가방 13%, 의류 9% 등

그림27 | 화장품 부문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8 | 화장품 부문의 대중국 수입액 및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8. 음료(HS 16~23) : 고급화 이미지에 가격경쟁력 추가로 수출 확대의 긍정적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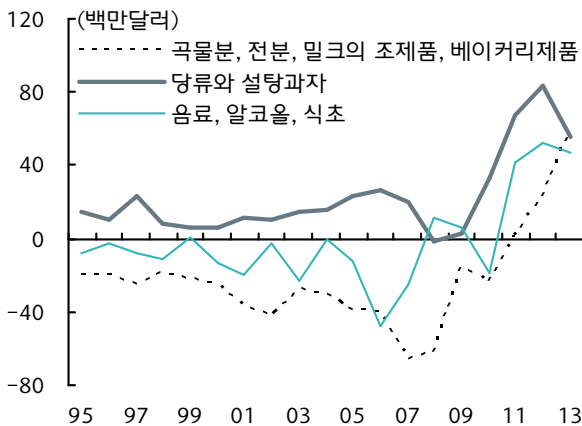
■ 현재 중국 내 한국산 음료의 비중은 미미하나 최근 몇 년간 몇몇 품목의 수출이 급성장 중

- 한국의 대중국 음료 교역은 과거 순수입 구조에서 최근 확산되는 한류 열풍 하에 식품 PPL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몇몇 제품이 순수출 구조로 전환
- 대중 전체 수출시장 규모에서 식료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조제분유(유제품), 비스킷, 김, 인스턴트 커피, 장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성장 중
 - 2011~13년 순수출 연평균 성장률 : 음료/알코올/식초(6.2%), 채소/과실/견과류/식물 조제품 456.4%
- 그러나 여전히 중국 내 한국산 음료 제품의 입지는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편이며, 이는 고가 프리미엄 수입산과 저가 자국산 사이의 애매한 포지셔닝 때문

■ 관세 부담 감소 시 기존 고급화 이미지에 가격경쟁력이 추가되면서 수출시장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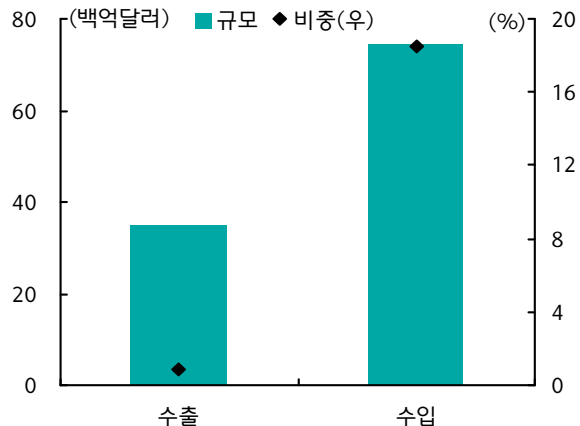
- 한-중 FTA 발효로 국내 음료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경우 국내 음료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시장 내 제품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현재 음료, 홍삼, 김 등의 관세율은 15% 이상(통관 시 부가가치세 17% 추가)으로 국내 출고 가격에 관세, 유통상 마진 등이 포함된 중국 내 소비자 가격은 국내보다 1.5~2.0배 비싼 편
- 특히 최근 중국 소비자들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고급화 이미지로 수요층 확대 예상
- 즉, 중국의 관세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음료업체는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수입산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자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요인

그림28 | 주요 음료 제품의 대중국 순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9 | 중국의 한국산 수입 및 한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9. 건설 : 산업 특성상 높은 내수 진입장벽으로 FTA 영향은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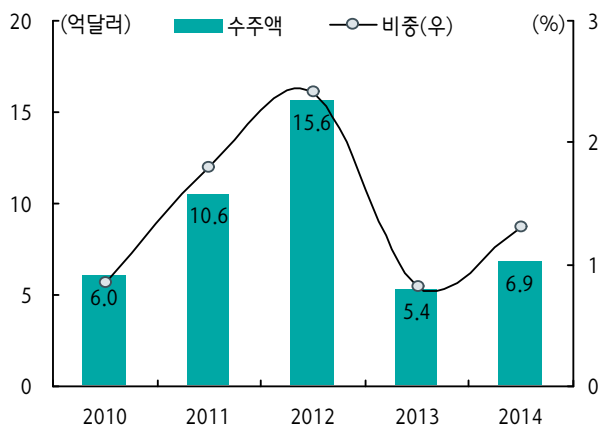
■ 현지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국내 건설사의 대중국 진출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임

- 국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피하고 있으나 계열사 공사 수주에 그치고 있고 총 해외수주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음
 -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 중 중국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
- 중국의 건설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건설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대부분 자국 건설사들이 수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진입장벽은 관시, 건설공사 하청구조, 건설면허(관급공사 수주는 1급 이상 필요)임

■ 한-중 FTA로 건설면허 취득은 용이해졌으나 취약한 가격경쟁력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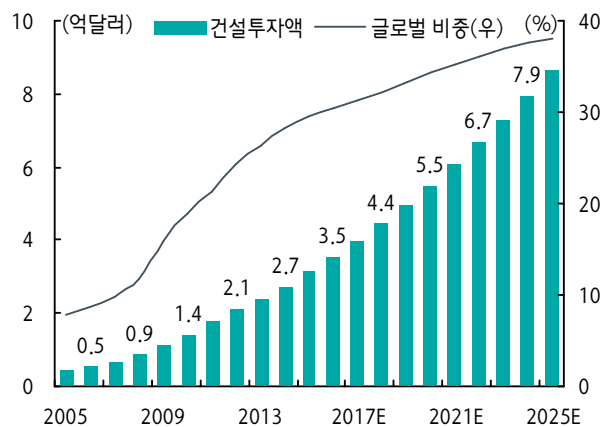
- 한-중 FTA 체결로 국내 건설사들이 한국 또는 제3국의 공사수행실적을 인정받게 되어 1급 이상의 건설면허 획득이 가능해져 중국 진출이 용이해졌음
- 그러나 국내 건설사의 기술 수준이 현지 업체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단기적인 한-중 FTA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공공사업은 현지 국영공사의 하청을 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 건설사가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구조
- 다만 플랜트 부문에서는 국내 건설사가 현지 업체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규모 플랜트 중심의 수주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31 | 국내 건설사의 대중국 건설수주액 및 비중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ICA)

그림32 | 중국 건설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 Global Insight

20. 소매유통 : 중국 관광객 증가 및 역직구 시장 성장 기대로 FTA 효과 긍정적

■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한-중 FTA가 발효된 후에도 국내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에게는 당분간은 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움
- 특히 고가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은 영향이 미미하며 다만 이번 한-중 FTA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대형마트는 중국산 식재료, 생활용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어 상품 구성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를 일부 실현할 수 있음
 - 중국에 진출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국산 제품의 판매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과의 직구, 역직구 시장 성장이 예상되어 양국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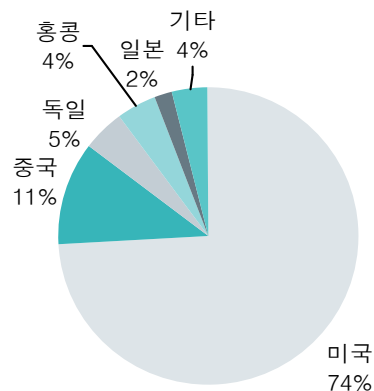
- 직접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영향보다는 해외 직구 또는 역직구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에 따라 양국간 관세 특혜가 주어지면서 미국 직구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한-중FTA에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다면 중국 직구도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또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소비재인 화장품, 패션 등을 중심으로 국내 쇼핑몰에서 중국인에 의한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물의 성장 가능성 존재
 - 다만, 이미 중국 내 온라인 결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알리페이가 국내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련 결제 시장의 주도권은 알리페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표7 | 현행 관세 부과 기준

<p>■ 관세부과면제의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가사용 2.일정금액 이하
<p>■ 관세면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만원 이하(물품가+운송료+보험료)
<p>■ 관세납부는 기본적으로(관세사를통해) 직접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관세대납을 허가받은 구매대행업체는 관세 대납 가능
<p>■ 한-미 FTA에 의해 특별통관지정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200불(물품가기준) 이하는 면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통관지정업체 지정요건: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수입대행 매출에 한함) 이상인 개인사업자 - 특별통관지정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구매대행의 경우 미국에 한해 6개품목(의류,신발,가구/조명기구류,서적,CD,화장지)은 \$200이하 통관 허용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그림33 | 해외 직구 국가별 비중



주 : 2014년 1~4월 건수 기준
자료 : 관세청

21. 해운 : 교역량 증가로 단거리 운항 중심의 중소 해운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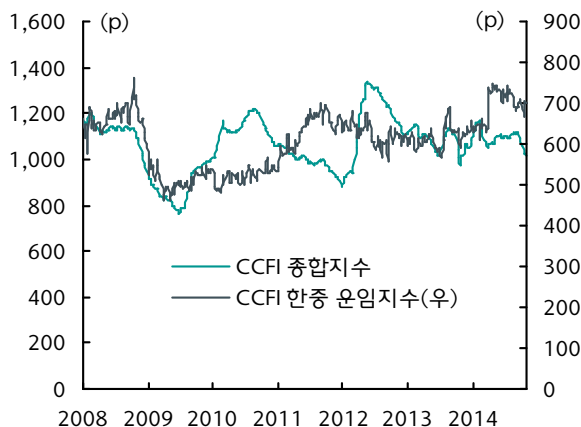
■ 한중 항로의 교역량이 늘어나며 해당 항로 운항권을 보유한 중소 해운사 수혜 예상

- 국내 해운산업은 과거 OECD 가입으로 인해 글로벌 완전 경쟁 시장 체제를 지속하고 있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한-EU 체결 이후에도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음
- 다만 한-중 항로의 교역량이 늘어나며 물류 수요가 증가해 해당항로의 운항권을 보유한 중소해운사들의 실적 향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의 대형 선사는 원거리 항로를 운영함에 따라 한-중 FTA 영향 없음

■ 한중 항로에 특화된 중소 해운사는 장금상선, 고려해운, 남성해운, 흥아해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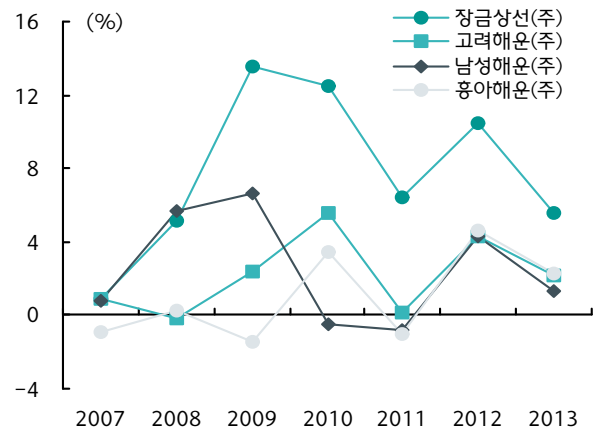
- 현재 국내 해운사 가운데 한-중 노선을 오가는 해운사는 중소해운사들로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등 임
 - 이중 장금상선, 고려해운은 국내 대표 강소해운사로 해운업황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 지속
- 특히 장금상선은 한-중항로 개설초창기부터 중국해운사와 지분을 공유하여 평택과 위해 지역을 독점적으로 운항해 왔으며 이후 고려, 남성, 흥아 등 중견 해운사들이 대거 진입
- 이에 한-중 항로 내 경쟁이 심화되고 그 효과로 2010년 이후 장금 상선의 수익성 또한 점차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나 한-중 FTA 체결로 향후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듯
 - 더불어 신규 진입 업체(고려, 남성, 흥아 외) 또한 관련 수혜 예상

그림34 | 한중 운임 변동 추이



자료 : 상하이 항운 교역소

그림35 | 한중 항로 운영 해운사 영업이익 변동 추이



자료 : Kis-Value

22. 항운 : 물류 증가가 기대되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여객과 화물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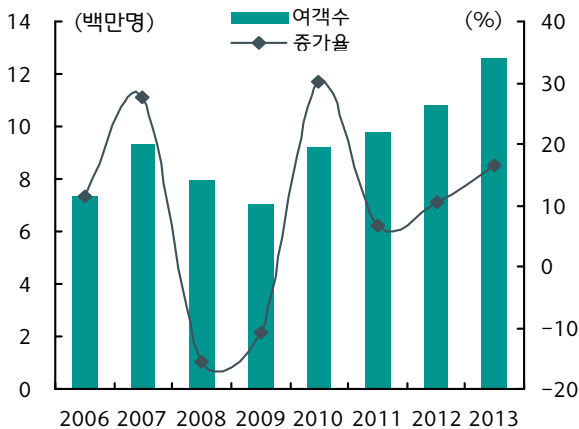
- 항운산업은 FTA가 체결되면 한·중 양국 간 인적, 물적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객 및 교역량 확대로 이어져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한-중 비즈니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한-중 노선이 장거리 노선이 아니어서 화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편이 아니며 선박을 이용한 수송 또한 가능해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율이나 연료유 가격이 수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한-중 FTA로 항공산업의 단기적으로 큰 실익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항공자유화를 기대

- 항공업체들은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운수권 배분 문제 등이 FTA와 관련 없이 별도의 항공 회담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을 전망
- 또한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의 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라 노선을 더 늘리고 싶어도 쉽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진적인 수혜를 기대
- 이에 따라 한-중 FTA는 국내 항공산업이 1차적인 수혜를 받기 보다는 새 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항공사들은 한-중 FTA 실시가 항공 자유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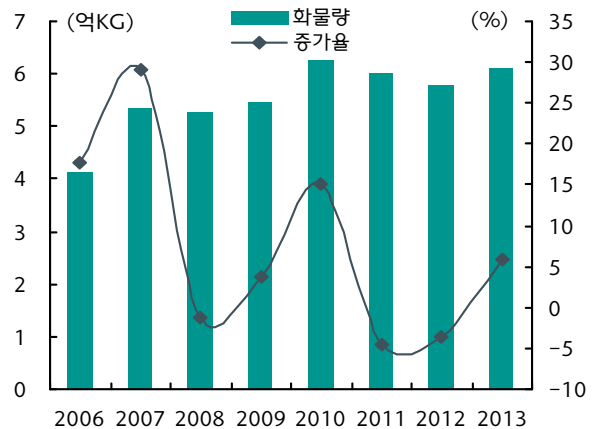
※ 한·중 양국은 2014년 4월 항공회담을 열어 45개 노선 주 426회에서 62개 노선 주 516회로 항공노선을 늘렸으나 아직 완전한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림36 | 한-중 여객수 변동 추이



자료 : 항공포털

그림27 | 한-중 화물량 변동 추이



자료 : 항공포털

표8 |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 억달러)

HS Code	주요 품목	한국 → 중국(수출)					중국 → 한국(수입)				
		대중국 수출액	YoY %	3년 CAGR	대중국 수출비중	중국의 한국산 비중	대중국 수입액	YoY %	3년 CAGR	중국산 수입 비중	
22	음료, 알코올, 식초	0.7	11.7	20.5	11.8	3.0	0.3	40.0	-20.6	4.8	
23	식품 잔유물과 조제사료	0.0	-1.6	17.7	2.4	0.1	4.6	3.2	23.8	24.2	
25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0.8	26.8	15.6	18.3	1.5	2.4	3.6	-6.8	34.9	
27	광물성연료	59.0	-16.6	7.0	14.4	2.4	7.5	-32.0	-11.0	0.5	
28	무기화학품, 무기화합물	7.8	39.7	-5.8	29.3	10.5	14.7	16.5	6.3	35.1	
29	유기화학품	101.4	-9.3	17.5	55.0	21.6	19.8	2.7	9.0	18.4	
30	의약품	0.7	31.0	12.2	7.0	0.6	0.9	0.7	1.2	2.5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6.1	-9.8	23.8	35.1	18.1	3.6	18.5	4.4	18.1	
33	화장품류	3.7	71.3	-2.1	28.9	14.8	0.5	6.8	17.7	3.7	
38	화학공업생산물	7.4	14.3	3.9	27.0	5.8	8.8	21.1	9.3	16.8	
39	플라스틱	77.8	-1.7	6.4	32.5	13.7	14.9	9.1	10.9	18.5	
40	고무	6.7	-5.3	0.0	10.9	5.1	2.8	0.0	11.2	13.5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2.1	-0.4	0.7	28.3	3.5	0.2	65.9	-14.4	2.8	
42	가죽제품, 기타 유사제품	0.4	-41.6	64.0	13.6	2.5	6.8	12.3	11.3	41.1	
43	모피,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0.0	-31.7	0.2	23.3	0.3	0.7	-15.9	-0.8	28.2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0.1	17.7	-6.1	7.6	0.0	5.3	9.6	16.4	21.1	
47	목재 및 펄프,	0.4	-15.0	-5.6	70.6	0.3	0.2	14.8	0.1	1.6	
48	제지용펄프 및 종이제품	1.7	-26.8	-11.9	7.1	5.1	3.3	6.7	5.8	25.8	
54	인조장섬유	4.1	-9.6	-2.9	15.6	15.4	4.6	12.6	12.1	50.6	
55	인조단섬유	2.6	1.9	-0.9	18.0	11.3	2.6	-5.9	-0.2	40.2	
62	의류와 그 부속품	1.9	-6.9	4.9	25.4	7.1	16.9	10.2	6.2	42.3	
70	유리와 유리제품	2.7	60.7	30.9	27.1	4.9	8.6	-23.9	31.9	40.4	
72	철강	29.7	13.2	-1.4	16.5	18.4	67.9	36.0	2.3	39.9	
73	철강의 제품	7.6	5.0	3.2	8.2	8.7	25.1	-8.7	3.1	37.7	
74	동과 그 제품	11.3	-26.8	0.5	35.1	3.2	4.4	12.9	8.3	9.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4.4	-2.5	-5.3	21.5	7.2	5.4	3.0	17.0	11.8	
84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08.3	5.2	-0.3	23.3	8.0	76.8	7.8	2.9	21.5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364.5	4.7	13.4	36.0	11.9	199.0	3.6	6.5	36.4	
87	운송장비 및 부품	54.3	10.8	10.3	10.0	8.1	11.1	-2.9	8.2	11.4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0	-86.6	106.6	0.4	12.5	3.4	-20.8	-27.2	25.1	
90	광학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와 부품	152.5	-4.9	0.9	57.3	19.4	30.5	15.5	7.2	23.2	
94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물	3.9	-0.2	24.4	21.4	15.4	12.2	23.3	10.2	65.8	

주 : 3년 CAGR은 2011~13년 기준, 수출입액 및 수출입 비중은 2014년 1~9월 누적 기준이며 YoY %는 전년동기비
 자료 : 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III.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금융산업 분야의 영향

- **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중 금융 부문을 별도의 독립된 章으로 분리하여 논의하는데 합의**
 - 중국은 기체결된 FTA 협상에서 금융을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한-중 FTA에서는 독립된 章(Chapter)으로 구성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6개, 서비스·투자 4개, 규범·협력 6개, 총칙 5개 등 총 22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구분
 - 양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과 관련된 FTA 협정의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
 -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양국 금융회사의 진출 및 영업과 관련된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는 조직으로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금융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합의**
 - 양국은 금융 관련 규정의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금융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합의
 - 수정된 규제안을 공표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도입 시 이해당사자의 조희 기간을 거치도록 함
 - 국내 금융회사들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영업에 도움
 - 또한 무분별한 투자자와 국가소송제(ISD)를 막기 위해 ISD 제기 시 금융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의 사전 협의 근거 조항을 마련
 -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ISD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나, 향후 금융회사들이 이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하고 ISD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는 2년 후 개최 예정인 2차 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홍콩 및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와 비슷한 개방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한-중 FTA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개방 정책 등과 함께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중 FTA는 최근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해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후강통 시행 등과 함께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연장선
 -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양국의 위안화 결제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양국의 금융 부문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내은행들의 애로사항 등이 제거됨으로써 향후 중국 내 영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금융 부문 개방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제약 조건도 다수 존재**
 - 중국은 기체결된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 현재까지 중국 금융산업의 명시적 장벽은 상당 부분 철폐되었으나,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에 대해 직·간접적인 제약 조건이 다수 존재
 - 2008년 체결된 중·싱가포르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이 WTO 가입 이후 5년에 걸쳐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역 및 영업범위 제한을 철폐한다고 명시
 - 그러나 여전히 투자 제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자은행의 지점 설립 및 영업 인허가 등에서 차별이 존재
 - 최근 외자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
 - 은감회는 2014년 9월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 방법"을 통해 동일 도시에서 한 개의 지행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및 지행의 최소 운영자금 요구 등을 삭제
-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비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비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제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
 - 또한 중국이 급격한 개방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서비스 협상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표9 | 중싱가포르 FTA 주요 금융서비스 부문 협의문

부문	시장 진입 제한
<p>보험업</p>	<p>(1) Cross-border supply :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진입 불허 재보험, 국제해운, 항공수송, 운수보험 및 대형상업 브로커, 국제해운, 항공수송과 운수보험 브로커 및 재보험 브로커 (2) Consumption abroad : 보험 브로커는 불허하며 기타 제한 없음 (3) Commercial presence A : 기업 형식 - 외국비생명회사의 지점 및 외자독자회사를 허가하며, 기업 형식 제한을 삭제 - 외국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 합자회사의 외자 비율을 50%까지 허용하며, 합자 파트너 선택이 가능 B : 업무 범위 - 외국비생명회사는 외국 및 국내 고객들에게 비보험서비스를 제공 - 외국보험회사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보험, 단체 및 양로, 연금보험 등을 제공 - 외국보험회사는 지점, 합자기업 또는 외자독자회사의 형식을 통해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없음</p>
<p>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서비스 (보험 및 증권 불포함) 1. 예금 기타 자금 수취 2. 소비대출 및 저당대출, 상업거래 시 대리 및 용자 등의 모든 대출 3. 금융리스 4. 신용카드 및 여행수표, 은행환어음 등 지불 관련 서비스 5. 담보 6. 외환거래</p>	<p>(1) Cross-border supply :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진입 불허 - 금융 정보 제공,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공 - 1~6까지 모든 관련 자문, 중개, 기타 관련 서비스, 투자 및 증권 관련 연구 및 건의, 다양한 전략 관련 수집 등 모든 행위 (2) Consumption abroad : 제한 없음 (3) Commercial presence : 지역 제한 - 외환 업무는 지역제한 없음 - 위안화 업무의 경우 외국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성시에서 경영이 가능 : 상해, 심천, 천진, 대련, 광주, 주해, 청도, 남경, 무안, 제남, 복주, 성도, 중경, 곤명, 북경, 사면, 심양 및 시안, 닝보, 산터우 등 WTO 가입 후 5년 이내 지역 제한을 철폐 * 고객 - 외환업무는 고객 제한 없음 - 위안화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들은 중국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 가능. WTO 가입 5년 내 외국금융기관은 중국 고객 모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영업 허가 - 아래 요건을 구비한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 내 외국독자은행 및 외국독자재무회사 설립 가능 : 신청 1년 연말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 - 아래 조건의 외국금융회사는 중국 내 외국은행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신청 전 일년 연말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중국 내 중외합자은행 및 중외합자재무회사 설립이 가능 : 신청 1년 연말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 위안화 업무의 외국금융기구 자격은 중국 영업 3년, 신청 전 연속 2년 연속 수익 달성 기타 제한 없음</p>
<p>증권서비스</p>	<p>(1) Cross-border supply :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진입 불허 - 외국 증권회사는 직접적으로 B주 거래가 가능 (2) Consumption abroad : 제한 없음 (3) Commercial presence :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진입 불허 - 중국에 있는 외국증권회사 대표처는 중국증권거래소의 특별회원 자격 부여 - 외국서비스제공자는 합자회사 설립 및 국내증권투자펀드 관리업무가 가능, 외국투자지분 비율은 49%로 제한 - 외국증권회사는 합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외자회사는 1/3의 소수의 지분 보유가 가능</p>

자료: China FTA Network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if.re.kr>